

저소득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프로그램 참여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노 성 향¹⁾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프로그램 참여가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하여 Salovey와 Mayer의 정서지능 요인을 바탕으로 이영자 등(2000)이 개발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20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적용하였다. 정서지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용린(1996)이 개발한 정서지능 검사를 사용하였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한국교육출판의 평가지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서지능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정서지능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의 정서지능 보다 높았다. 둘째, 정서지능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 가정 아동은 정서지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일부는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참여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고 적용되면 아동의 전인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가정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정서지능,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저소득 가정 아동

1)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E-mail : margarita97@hanmail.net

I. 서 론

빈곤은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부정적 요인 중 하나이다. 빈곤은 부적절한 영양, 부적절한 주거, 부적절한 아동양육 등과 같은 환경을 야기하여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rooks-Gunn과 Duncan(1997)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아동은 다른 계층의 아동에 비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상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10대 미혼모의 발생률도 더 높다.

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정소희, 2004)에서도 아동 가정의 빈곤율이 높을수록 영아사망율, 저체중아 발생율, 십대출산율이 증가하고 학교등락율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 가정의 빈곤이 아동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들은 우리나라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복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경제 위기 이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빈곤이 더욱 심화되었으나 빈곤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빈곤가정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나 저소득층이란 영세민층, 빈곤층, 빈민층 등으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나 기술수준이 낮아 수입도 작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겨우 영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저소득 가정이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된 가정을 말한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민기초 생활법상의 수급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

층의 폭이 더 넓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은 급식제공, 보육료 감면 등 기초적인 보호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 사업에 아동의 교육이나 학업지원 활동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과 유사한 We Start 프로그램과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그 예이다. 이는 교육이 저소득 가정 아동이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 받지 않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 때문이다. 이는 Sampson & Laub(1994)의 주장 “교육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직업적 지위나 계급적 위치, 소득을 얻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 권력과 통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제공한다”에서도 알 수 있다.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더불어 계층상승에 대한 열망수준이 높은 저소득 가정의 부모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소득 가정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의나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김영희, 2001). 그러나 사교육비의 부족, 학습을 촉진하는 물리적 환경의 부재, 제한된 부모의 지원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학업성취도는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에 의해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는 과정 또는 결과이다(교육학 용어사전, 1991).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개인차가 많아서 이를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학습의 효율성과 관련지어 출발점 행동(entering behavior)이라 정의하고 다양한 연구의 주제로 관심을 가져왔다.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습자의 지식이나 학업습관, 지능 등

의 인지적 행동 특성과 학습자의 동기, 흥미, 태도, 가치관 등의 개인의 심리적, 정의적 특성, 개인의 가정환경 등 많은 변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 변인 중 학습자의 내적 학업성취동기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아동 스스로가 공부에 대해 보람이나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른 외적동기가 주어지는 경우보다 아동의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성이 있었고(전경숙, 1985), 교사의 지시적 수업보다는 비지시적 수업이 더 효율적이었고(오성삼, 구병두, 1999), 창의적인 분위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상범, 윤정륜, 2004). 특히, 미국 국립 임상 치료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에의 성공이라는 것은 지식축적의 양과 조속한 읽기 능력 등이 아니라 사회적 감성 능력에 따라 예측될 수 있다는(박상범, 정륜, 2004 재인용) 연구와 개인의 IQ만으로는 21세기에 적응하기 어렵고, 여럿이 모여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공동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황의명, 찬옥, 1997)는 연구 등이 보고되면서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 Thorndike가 “사회지능”의 개념과 함께 제기하여 20세기 후반 Gardner가 주장한 “다중지능”에 이르기까지 왕성하다. 정서지능은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나 Salovey & Mayer(1990)는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과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정서지능은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사건에 대한 추론으로 이루어

진 복합적이고 지능적인 개념의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정신과정,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정신과정, 그리고 정서를 사회 적응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줄 아는 정신 과정들의 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alovey & Mayer, 1990).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EQ(Emotional Quotient)라는 대중적인 용어로 정착시켰다. 그는 정서지능을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자기 인식 능력(knowing one's emotions, self-awareness)’, 자신의 내재적 감정에 대처하여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managing emotions)’,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 자신의 통제와 긍정적 자아몰입으로 ‘자신을 동기화 하는 능력(motivating oneself)’, 타인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가를 파악하여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타인감정 인식능력(recognizing emotions in others)’,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로 대인관계의 효율성과 같은 심리적 능력을 뒷받침 해주는 ‘대인관계 다루기 능력(handling relationships)’의 다섯 가지 EQ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의 지체나 미숙함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서능력을 동기를 부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욕을 잃지 않게 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순간적인 만족감을 지연시키고, 기분을 조절하고, 고뇌 때문에 사고능력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고 감정이입과 희망을 키워주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ischell(1990)은 스탠포드 대학의 교직원과 대학원생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4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14년 동안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종단연구를 한 결과 어릴 때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고등학

교 때의 재평가에서 생각을 언어로 옮기기,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대응하기, 집중하기, 계획을 세워 끝까지 실천하기, 학습에 대해 열의를 보이기 등에 모두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AT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음을 보고하였다. Mayer, Salovey 그리고 Dipaolo(1990)의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능력과 감정이입 능력이 학업성취도와 정적상관 관계가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능력과 감정이입 능력이 높은 사람은 능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류숙희(1996)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Gardner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7개의 다중지능 중 개인간 지능과 학업성취도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용린(2001)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에서 보다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고 보고하고 있다(문용린, 2001). 그러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Coles(1997)의 연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일수(2000)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학업성취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결과는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지능 프로그램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저소득 가정 아동 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계층과 달리 특수한 환경에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

는 것은 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1999년에 혼합연령 아동을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본 적이 있지만 초등학생만 있는 방과후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서지능의 하위영역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변인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서지능 프로그램 참여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정서지능 프로그램 참여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정서지능의 하위영역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교육부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획자를 파견하여, 이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를 가지고 대상 학교의 도서관, 특별활동프로그램, 방과후 교실 등을 운영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으로 서울시의 6개 지역, 부산시의 2개 지역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아동을 보호하고 보충학습을 지도하며 간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아동은 모두 한부모 가정이거나 저소득 가정의 아동으로 선별되어 무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W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학교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이고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실이 3개반 운영되고 있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선정하기가 용이하였다. 각 학급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학년과 3학년 혼합반이었다. 3개 반 모두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정서지능 검사 결과와 학업성취도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 두 반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두 반의 정서지능 점수는 각각 평균 84.99(11.46), 평균 80.02(12.42)이고, 학업성취도는 평균 74.93(8.78), 평균 74.22(9.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1$). 선정된 두 반은 각각 3학년 21명, 2학년 9명 한반과 3학년 20명, 2학년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한반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3학년 아동 20명에게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적용과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정서지능 프로그램은 이영자등이 1999년 개발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본 프로그램은 Mayer와 Salovey의 정서지능 구성요소를 4영역 4수준으로 구분한 17개의 교육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자등의 연구에서는 만 5세~만 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 활동을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활동 중 초등학교 3학년 아동에게 적절하다고 초등학교 교사 3인과 교육학 전공자 2인에 의해 선정된 10개의 활동을 활용하였다. 표 1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용린(1996)이 제작한 정서지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유아용, 초저용(초등학교 1학년~2학년), 초고용(초등학교 3학년~6학년), 중학생용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저용 검사와 초고용 검사는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 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조절 능력의 네 가지의 하위 능력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초고용 검사에는 정서활용능력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므로 초고용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가지 영역 37문항, 3점 척도로, 각 영역은 정서인식 7문항, 정서표현 6문항, 감정이입 7문항, 정서조절 10문항, 정서활용 7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용린이 보고한 신뢰도는 정서인식 .78, 정서표현 .68, 감정이입 .72, 정서조절 .84, 정서활용 .7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71, 정서표현 .80, 감정이입 .76, 정서조절 .75, 정서활용 .73이었다.

학업성취도 검사는 교사용 지침서로 많이 활용되는 (주)한국교육출판에서 제공하는 월간 교육 자료 중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교사에 의해서 선정된 평가지를 사용하였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네 가지 과목 4과목에서 100문항

표 1. 정서지능 프로그램 활동내용

활동명	활동목표	활동내용
1 음악 속에 이야기가 있어요	정서에 의한 사고 촉진	음악 속에서 느낀 정서를 이용하여 이야기 만들기
2 음악을 몸으로 느껴요	정서의 인식과 표현	음악을 감상하면서 음악 속에서 느껴보고 색을 이용하여 정서를 표현하기
3 우리는 한 팀	정서의 반영적 조절	신문지를 이용한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4 나는 평화를 꿈꿔요	정서적 지식의 활용	‘전쟁’에 관한 글, 그림 감상 후 편지쓰기
5 어떤 느낌일까요	정서적 지식의 활용	미술 작품 속에 나타난 정서를 수수께끼로 낸 후 알아맞히기
6 바꾸어 놀이해요	정서의 반영적 조절	아동들이 선택하여 여러 가지 게임하기
7 음악을 그려요	정서적 인식과 표현	음악을 감상하면서 음악 속에서 느낀 정서를 점, 선, 모양으로 표현하기
8 내가 너라면	정서에 의한 사고 촉진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들려준 뒤 늑대의 입장이 되어 문제 해결 해보기
9 이럴 때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정서의 인식과 표현	놀이공원을 잡지 속 인물사진과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꾸미기
10 뒤편이야기를 지어보아요	정서적 지식의 활용	그림동화를 듣고 등장인물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후속 이야기 만들기

이고 각 과목은 25문항, 5지 선다형,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는 두개의 평가지가 모두 신뢰도 계수 .60을 넘어 사전검사 평가지의 신뢰도 계수는 국어 .84, 수학 .85, 과학 .80, 사회 .84로 나타났고, 사후검사 평가지의 신뢰도 계수는 국어 .82, 수학 .87, 과학 .79, 사회 .87로 나타났다. 타당도 검증은 초등학교 학교교사 3인과 교육학 전공자 2인의 검토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4년 4월부터 7월에 걸쳐 12주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회의 프로그램 활동은 각각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입과 마무리와 10개의 활동이 12주 동안 진행되었다. 도입활동은 자신의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이용하여 자기를 재미있게 소개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고, 마

무리 활동은 그동안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하고 사진을 보면서 서로의 참여를 격려해 주었다. 개별 활동들은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게임, 토의, 신체표현, 음악감상, 미술감상 및 표현, 조사활동, 신문만들기, 동화짓기 등의 다양한 유형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검사와 학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이 정서지능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동안, 비교집단 학생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였다. 12주의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한 뒤 1주일 후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 검사를 사후 검사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서지능 프로그램 실시전후의 정서지능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검증)를 실시하였고 정서지능 하위영역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정서지능 프로그램과 정서지능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정서지능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 아동과 비교집단 아동의 정서지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정서지능

을 살펴보면,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영역에서 모두 실험집단 아동이 비교집단 아동보다 다소 점수가 높았으나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시한 정서지능 검사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정서지능은 84.99에서 94.80으로 평균점수가 상승하였고 실험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 점수의 비교 결과 프로그램 실시전후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표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하위영역별 정서지능 점수

		실험집단	비교집단
		M(SD)	M(SD)
정서인식	사전	19.00(2.55)	17.93(2.65)
	사후	19.87(2.65)	18.57(3.26)
	t값	1.24*	1.17
정서표현	사전	15.19(2.32)	14.23(2.49)
	사후	16.30(2.47)	14.53(2.33)
	t값	0.60*	1.02
감정이입	사전	14.50(2.89)	13.93(2.99)
	사후	16.33(2.77)	14.33(3.84)
	t값	3.45*	2.01*
정서조절	사전	20.57(5.48)	18.60(6.32)
	사후	24.73(4.73)	21.27(7.35)
	t값	4.97***	1.84
정서활용	사전	15.73(2.69)	15.33(2.72)
	사후	17.57(2.78)	15.80(3.53)
	t값	3.94**	2.13
전체	사전	84.99(11.46)	80.02(12.42)
	사후	94.80(9.06)	84.50(15.38)
	t값	4.94**	2.13

* $p < .05$, ** $p < .01$ *** $p < .0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4.94, p<.01$).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서인식 19.00에서 19.87로 평균점수가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서표현은 15.19에서 16.30으로 평균이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나타냈고, 감정이입은 14.50에서 16.33으로 평균점수가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차이를 나타내고, 정서조절은 20.57에서 24.73으로 평균점수가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정서활용은 15.73에서 17.57로 평균점수가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적용전후 두 집단간 집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아동은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 정서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정서지능 프로그램과 학업성취도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에 실험집단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국어 학업성취도는 평균이 사전 79.00, 사후 82.00으로,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에 국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79, p<.01$). 수학 학업성취도는 평균이 사전 70.67, 사후 75.30으로,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보다 실시한 후에 수학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나 유의미한 집단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사회 학업성취도의 평균은 사전 75.00, 사후 81.33으로, 실험집단 아동은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

한 후에 사회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15, p<.01$).

과학 학업성취도는 평균이 사전 75.03, 사후 79.00으로,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에 과학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34, p<.01$).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도는 평균이 사전 74.93, 사후 79.41로, 아동은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에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28, p<.001$).

표 3.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 학업성취도

		실험집단	비교집단
		M(SD)	M(SD)
국어	사전	79.00(9.14)	78.00(9.12)
	사후	82.00(7.89)	81.83(9.23)
	t값	2.79**	1.03
수학	사전	70.67(9.19)	71.03(8.73)
	사후	75.30(7.04)	72.57(9.25)
	t값	2.00	1.08
사회	사전	75.00(9.25)	74.32(9.40)
	사후	81.33(7.35)	78.33(8.58)
	t값	3.15**	1.26
과학	사전	75.03(8.78)	73.53(9.18)
	사후	79.00(3.97)	74.50(9.94)
	t값	3.34**	0.21
전체	사전	74.93(8.78)	74.22(9.23)
	사후	79.41(4.48)	76.81(8.59)
	t값	4.28***	0.99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한 아동은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에 국어와 사회, 과학 학업성취도와 전체적인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과 학업성취도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아동들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서인식은 국어 학업성취도($r=.262,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학과 사회, 과학 학업성취도, 그리고 전체적인 학업성취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표현은 국어($r=.333, p<.01$), 사회($r=.324, p<.05$), 과학($r=.313, p<.05$), 그리고 전체적인 학업성취도

($r=.340,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학 학업성취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감정이입은 수학($r=.260, p<.05$), 그리고 전체적인 학업성취도($r=.271,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국어와 사회, 그리고 과학 학업성취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조절과 정서활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학업성취도, 그리고 전체적인 학업성취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정서지능은 수학($r=.271, p<.05$), 과학($r=.263, p<.05$), 그리고 전체적인 학업성취도($r=.280,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국어와 사회 학업성취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표 4. 정서지능 하위영역과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구 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학업성취도
정서인식	0.262* (0.043)	0.228 (0.080)	0.190 (0.146)	0.212 (0.104)	0.247 (0.057)
정서표현	0.333** (0.009)	0.254 (0.051)	0.324* (0.012)	0.313* (0.015)	0.340** (0.008)
감정이입	0.222 (0.089)	0.260* (0.045)	0.243 (0.062)	0.253 (0.051)	0.271* (0.037)
정서조절	0.160 (0.223)	0.156 (0.233)	0.149 (0.256)	0.198 (0.129)	0.184 (0.159)
정서활용	-0.035 (0.791)	0.129 (0.327)	-0.007 (0.957)	-0.006 (0.963)	0.021 (0.875)
전체	0.244 (0.060)	0.271* (0.036)	0.234 (0.072)	0.263* (0.042)	0.280* (0.030)

* $p<.05$, ** $p<.01$

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아동은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에는 정서표현과 감정이입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실시가 저소득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감성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영석(1999)의 연구결과와 유아의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힌 김영란(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정서지능 훈련프로그램이 전반적인 정서지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지(1999), 유광선(1999), 임선경(2000), 조미정(2003)의 연구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지능 프로그램은 유아와 초등학생 혼합연령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으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도 정서지능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정규과정의 하나로 정서지능 프로그램 적용을 고려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실시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

과는 인지발달과 정서발달이 평행하면서도 보완적인 과정으로 인지는 발달의 구조적 특성을 제공하고, 정서는 발달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Piaget의 의견과 유사한 결과로 정서가 인지구조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결과이다.

셋째, 정서지능의 하위영역과의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서표현과 감정이입이 저소득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의 인지적 요인보다는 정서표현과 감정이입 등의 정서적인 요인이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난 아동이 높은 학업성취를 했다는 Mischell(1990)의 연구와 상반되고 정서인식 능력과 감정이입 능력이 학업성취도와 정적상관 관계가 있다는 Mayer, Salovey 그리고 Dapaolo(1990)의 연구와 일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에 와서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학습자의 내적동기가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과 일치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성적으로 흥분되거나 불안한 상태일 때, 학업성취도는 개인의 특성, 내적동기, 감성적인 것에 의해 더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감성에 대한 자아인지 능력은 지능보다 학업 예언력에 높게 제시되었다(Crocker & Cheeseman, 1988; 장정애, 1998). 따라서 저소득 가정 아동을 지도할 때 특히 이들에게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아동이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며 아동이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훈련받도록 조직

되어야 된다는 제언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추후의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단기에 걸쳐 적용하였으므로, 장기간 실시한 뒤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온 개개의 아동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영향 받는 요인 또한 다양한데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에 학부모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양육태도의 영향, 교사-부모와의 정서지능의 연계지도 방안의 효과를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교육을 통해 정서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가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며,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들의 자기 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였으므로, 교사에 의한 관찰, 아동행동 변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다차원적인 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의 대상은 단일연령이었으므로 추후 혼합연령 구성과 단일 연령구성 모두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연령구성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를 고려해 보는 것 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학 용어사전 (1991). 서울: 배영사.
- 김경희 (2000). 아동지도 실태조사 연구. 복지사회연구, 3(1), 75-88.
- 김영란 (2002). 유아의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 179-190.
- 김현지 (1999). 아동의 정서발달 프로그램의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숙희 (1996). 지각된 다중지능의 집단차와 IQ 및 성적과의 관계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1996). IQ와 EQ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중요한가. 서울: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 문용린 (1998). 정서지능연구의 현대와 미래.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EQ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서지능의 이해와 적용. 기초강연논문.
- 문용린 (2001). 학교에서의 정서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대 논총, 제62호, 27-53.
- 박상범, 윤정륜 (2004). 초등학생의 창의성과 감성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4), 199-216.
- 오성삼, 구병두 (1999).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형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37(4), 99-113. 한국교육학회.
- 유광선 (1999). 정서지능 향상 교육프로그램이 정서지능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 (1999). 유아를 위한 감성 교육 프로그램 및 그 효과 확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1), 1-28.
- 이영자, 이종숙, 이옥, 신은수, 이정옥 (2000).

- 정서지능 프로그램. 양서원.
- 이일수 (2000). 고교생의 감성지능과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 (1998). 정서지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감정이입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경 (2000). 감수성 훈련 program이 EQ 하위요인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애 (1998). 초등학교생의 감성지능과 학업성취, 학교 적응, 사회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1985). 아동의 학업성취동기 요인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69-76.
- 정소희 (2004). 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정 (2003). 정서지능 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의명, 박찬옥 (1997). 유아를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양서원.
- Brooks-Gunn, J., Duncan, G., & Britto, R. (1999). *Are socioeconomic gradients for children similar to those for adult? Developmental healthy and wealth of nations: social, biological and educational dynamics*. New York: Guilford.
- Coles, R. (1997). *The moral intelligence of children*. New York: Random House.
- Crocker, A. C., & Cheeseman, R. (1988). Infant teacher have a major impact on children's self-awareness. *Children & Society*, spring, 2(1), 3-8.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snysm Books.
- Mayer, J. D., & Salovey, P., & Dipaolo, M. (199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un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ment*, 54(3), 772-781.
- Mischell, W.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gra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2-78.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 Mayer, J. D.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 Sluter, D.(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 3-34, New York: Basic Books.
- Sampson, R. J., & Laub, J. H. (1994).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Relevance of research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Child Development*, 65, 283-295.
- 1차 원고접수 : 2005. 3. 30.
수정원고접수 : 2005. 5. 30.
최종게재결정 : 2005. 6. 4.

The Effect an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on Emotional Quoti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Rho sung hya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EIP) on Emotional Quotient & the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third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EIP was administered to 20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April 2004 to July 2004. Experimental group has taken EIP(Lee, 2000). Emotional Intelligence Test(Moon, 1996) were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T-test was utiliz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the EIP on the children's emotional quotient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 who was exposed to the EIP excelled the control group in empathy, emotional control and emotional utilization. Second,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EIP excelled in academic achievement.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the EIP had a good effect on enhancing the emotional quoti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In a word, emotional education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facilitating the balanced emotional and cognitive growth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academic achievement,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부록: 활동의 예시

- ▶ 활동명 : 내가 너라면... 아기돼지 삼형제
- ▶ 활동목표 : 정서에 의한 사고촉진
- ▶ 집단구성 : 소집단
- ▶ 활동자료 : 아기돼지 삼형제(융판동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그림동화), 종이, 필기도구
(연필, 크레파스, 색연필 등)
- ▶ 활동진행
 - 도입(10분)
 - 1) ‘아기돼지 삼형제’를 간단하게 들려준 후에 아기 돼지들과 늑대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다.
“늑대는 왜 아기돼지의 집을 찾아갔을까?”, “늑대가 왔을 때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돼지는 기분이 어땠을까?”, “늑대가 지푸라기 집을 쉽게 부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 2) 관점이 다른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자. 늑대가 자기 입장에서 아기돼지 삼형제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싶단다. 늑대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
 - 전개(30분)
 - 1)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기 돼지들과 늑대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야기 해 본다.
 - ① 등장인물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기
 - ② 등장인물에 감정이입하여 정서인식하기
 - ③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정서 인식하기
 - ④ 바람직한 문제해결 찾기
 - 2) 각 아동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 새로운 관점의 동화를 구성한다.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만화로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동은 짝을 지어 구성할 수도 있다.
 - 마무리(10분)
 - 1)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 2) 동화 짓기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
 - 3) 활동이 끝난 후 아동들의 작품을 모아 책으로 묶어 볼 수 있게 한다.